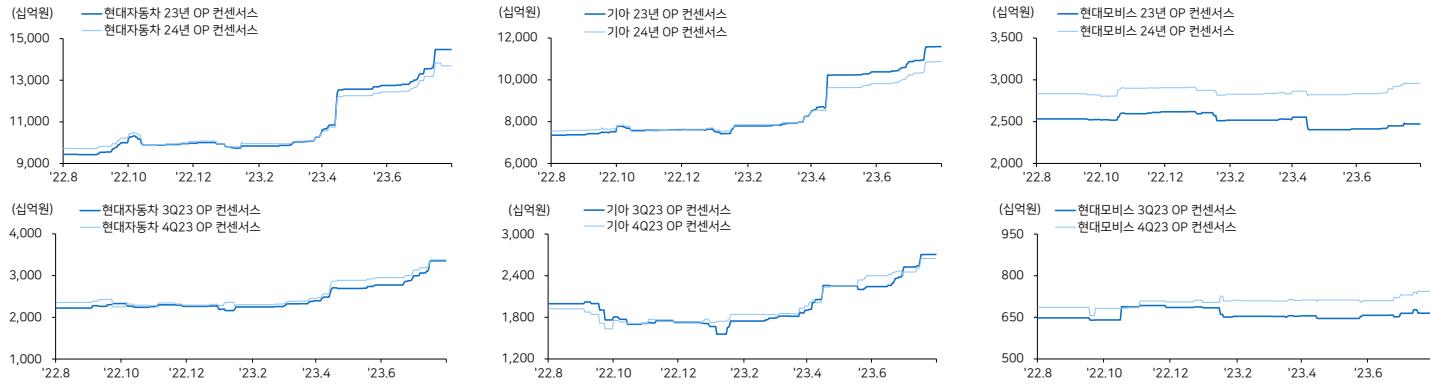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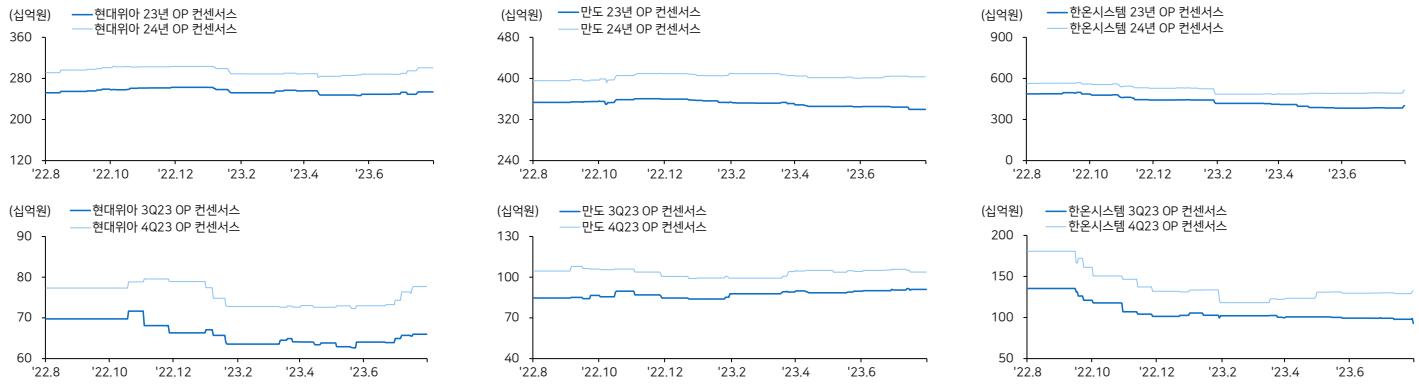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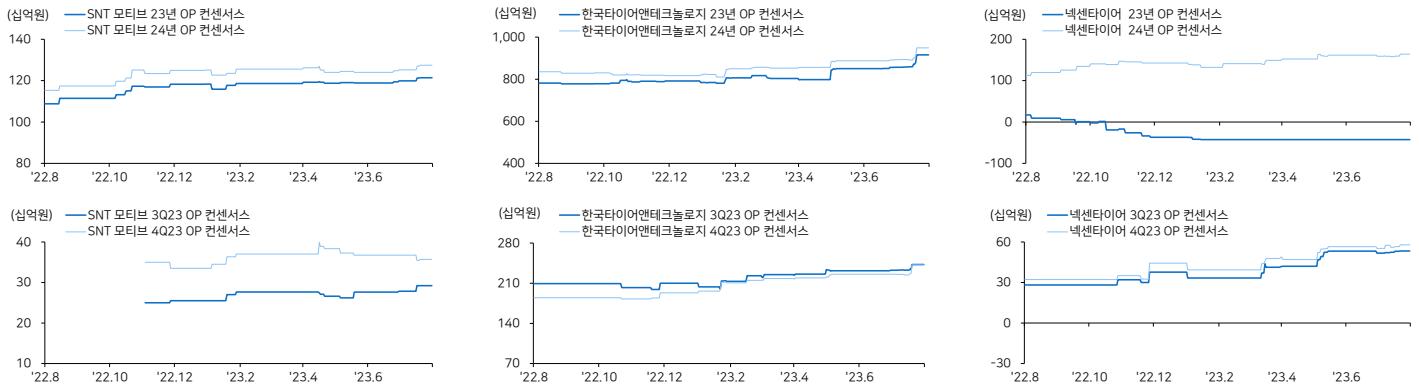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Revamped Tesla Model 3 expected to be launched in China this month (CnEVPost)

중국 매체는 Tesla 모델3 페이스리프트 버전(Highland)이 이르면 보이 이내 중국에서 판매될 것이다 보도함.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부 매장에서 이미 고액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으며 예상보다 빠른 8월 말 시점에 고객 인도될 것으로 추정

<https://han.gl/mcxNVi>

New York is now the world's first city to mandate EV rideshare fleets by 2030 (Electrek)

뉴욕시는 2030년까지 도시 전체 전기차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함. 2024년부터 뉴욕에서는 Uber와 Lyft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5%를 전기차 차량으로 운행할 방침이며 2025년 15%, 2030년까지 100%로 단계적 전환 예고

<https://han.gl/lSdqVXs>

GM backs EV battery startup as it shifts future focus to cheaper materials (Reuters)

GM은 전기차용 저가 배터리를 개발하는 Mitra Chem이 투자 유치(총 6000만 달러 규모)에 밸류드와 나선 것으로 알려짐. 업계는 최근 빠르게 GM의 배터리 공급망 및 모듈 조립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생산 지연을 둘째할 방안으로 해석함

<https://han.gl/1Sduzb>

Li Auto to see capacity bottleneck resolved in Oct, CEO says (CnEVPost)

Li Auto의 설립자이자 CEO인 Li Xiang은 웨이보 게시물에 리트윗하며 최근 부품 부족 현상은 10월 안에 해결될 것이다 밝힘. CEO는 중국 국경 절연 기간 동안 장쑤성 청저우에 있는 공장을 업그레이드하여 생산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라 첨언함

<https://han.gl/ExPNQY>

포드, 신차에 '블루크루즈' 기능 기본 탑재... "구독 방식 (지피코리아)

오토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미래의 많은 차량에 블루크루즈를 표준으로 만들어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익스페디션 등을 포함한 2024년형 신차 50만 대에 헨즈프리 기술을 기본으로 탑재할 계획

<https://han.gl/EGQFUH>

Texas officially forces Tesla's NACS to get access to \$400 million in subsidies (Electrek)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미국 Texas주는 타 충전소 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억 7,000만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에 Tesla의 NACS 커넥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https://han.gl/BvqDai>

GM 인도 차량 인수한 현대차... '커지는 인도 시장 '본격 공략' (한국경제)

현대차는 인도 하리아나주(서) 현대차인도법인(GMI)과 틸레가온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3만대 수준이며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

<https://han.gl/lSbqVNU>

테슬라, 모든 전기차와 호환되는 가정용 충전기 출시 (디지털투데이)

Tesla가 새로운 가정용 충전기인 Tesla Universal Wall Connector를 출시함. 해당 충전기는 슈퍼차저 매직 독을 활용해 북미에서 주로 사용돼 온 J1772 인렛이 정착된 차량과 북미충전표준(NACS)을 준수하는 차량 모두 충전 가능

<https://han.gl/DploRo>

中 사업 재편 나선 현대차, 물류 줄이고 온라인 판매 도입 (ZDNet)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 북경현대는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차량 온라인 구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해 한중(限韓字) 등으로 축소된 딜러십을 대체 또는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펼쳐짐

<https://han.gl/CpVVDH>

현대차그룹, 中 나스와 맞손... "중국 EV 충전 시장 진출" (Bloter)

현대차그룹은 중국 전기차 충전 정보 업체 NaaS와 현지 충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중국 고객에 최적화된 전기차 충전 기술 및 연계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

<https://han.gl/vUEziv>